

“남도불교, 서민 불교 문화의 寶庫”

(보고)

구립 19일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 개원 세미나서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가 12월 19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대회의실에서 남도불교문화의 특성을 주제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리산을 비롯한 남도의 불교는 왕과 귀족을 위한 불교가 아닌 민초들과 함께 한 살아있는 불교였습니다. 이러한 서민 불교에 대한 모습을 이 지역에서 다시금 되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센터장 이종수)가 12월 19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민초들과 함께한 남도불교 문화의 특성을 살리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이종수 순천대 HK교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의 설립배경과 연구방향’을 통해 한국불교 연구에서 남도불교는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분야의 연구활동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 교수는 ‘삼국시대 호남지역은 백제, 영남지역은 신라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도 불교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다’며 “고려시대에는 정혜결사야 백련결사, 대장경 판각 등 주요 불교활동은

이종수 “결사 등 자정 운동 중심지”
김용태 “유학과 소통, 민초들과 동력”
효광 스님 “순례길·패불계 활용 필요”

남도에서 이뤄졌다. 조선시대에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에서 불교 활동이 가장 활발했으며 지역민들과 밀착한 전법이 이뤄졌다. 남도불교 연구는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남도불교문화연구의 방향 발표를 통해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진행할 수 없는 분야를 개척할 것을 밝혔다.

이어 김용태 동국대HK교수는 ‘조선 후기 지리산권 불교와 부휴계’ 발표를 통해 조선불교의 양대 축 중 하나인 부휴계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부휴계는 청어 휴정의 동문인 부휴 선수의 법맥을 계승한 계파로 17세기 전반 벽암 각성이 활약하며 계파로

토대를 다질 수 있었다”며 “그 순제자 백암 상충 때에 이르러 보조 지눌의 유휴를 내세우며 송광사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고히 다졌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어 “당시 불교계는 유학자들과 소통하고, 민초들과 함께 동거동락의 한 특징이 있다”며 “화엄교학과 조사선의 양대 흐름이 교차하며 공존한 이 전통은 근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부휴계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불교의 과거와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는 거울이며, 유교와 민초를 아우른 한국적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화엄사의 불교문화와 연구과제’에서 화엄사 총무국장 효광 스님은 “지리산의 불교문화의 재창조를 위해 화엄사는 현재 구중암, 금정암, 연기암, 사성암 등 인근 암자순례길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선재동자를 모티브로 하는 선재순례길, 선재동자길 등 테마로 지리산 지역을 순례 문화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효광 스님은 이어 “화엄사, 천은사, 도림사의 패불을 활용한 패불제에 남북분단의 비극을 치유하는 위령제 성격을 섞고, 세월호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행사가 키워나간다면 예로부터 민초들과 함께한 지리산 권역의 불교문화를 다시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남도불교문화연구센터는 영호남 연합 및 불교문화 탐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건반없는 피아노 소리는 주인공 화두”

불교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설산 암자 배경 2월 크랭크인



(주)씨네프렌드가 12월 22일 조계사 찻집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소재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법공 스님 역의 배우 배건식 씨,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김형수 감독, 묘선 스님 역의 신유주 씨.

“자신의 눈을 실명하면서까지 탐욕이라는 괴물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려는 은사 목계 스님, 또한 은사스님의 열반 후 비로소 ‘건반 없는 피아노’라는 화두를 타파하는 제자 법공과 묘선을 통해 진정 우리가 한 세상 살며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생각해 보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은 김형수 씨는 자신의 영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주)씨네프렌드가 12월 22일 조계사 찻집 나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교 소재의 영화 ‘건반 없는 피아노’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나리오와 연출을 맡은 김형수 감독, 법공 스님 역의 배건식, 묘선 스님 역의 신유주 씨 등이 참석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다. 비구 법공 스님과 비구니 묘선 스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계 스님의 손에서 길러졌다. 어렸을 적 애뜻한 감정이 있었지만 수행자가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이후 두 사람은 은사 법공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다시 만나게 된다. 은사스님은 자신의 법구를 다비하는 대신 들짐승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긴다. 스승의 유언을 따르고자 하는 대중 스님들과 후원을 거스를 수 없다는 법공 스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 결국, 법공 스님은 대중들 몰래 은사 스님의 유언을 따르게 되면서 그의 화두였던 ‘건반 없는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다.

시나리오를 작업한 김형수 감독은 “건반

씨네프렌드, 구립 22일 제작 발표 은사 목계 스님 입적 배경으로 법공·묘선 구도 과정 묘사해

없는 피아노는 주인공의 화두이자 나의 화두이다. 영화가 공개되기 전까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인 불교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사실, 지금까지 불교 영화는 많았지만 불교를 이야기하는 영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본질적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며 의지를 전했다.

남자 주인공 법공 역을 맡은 배우 배건식 씨는 10여년 배우 생활 동안 스님 역할은 처음이라 설렌다며 소감을 전한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스님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시나리오를 읽어 보고 주저 없이 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생의 길을 고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배

씨는 영화 신기전, 드라마 세븐데이즈 등에 출연했으며 악수터 부르스 등 다수의 독립영화에 출연했다.

묘선 역을 맡은 여자 주인공 신유주 씨는 삭발을 앞두고 다양한 마음이 교차한다며 솔직한 소감을 밝혔다.

“삭발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자업임을 절감합니다. 한 명의 스님이 온전하게 탄생하기까지 수행해나가는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 씨는 영화 식객과 미인도, 드라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솔 악극집 아들들 등에 출연했다.

김 감독은 설산의 암자를 배경으로 2월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겨울 배경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을 돌며 영화와 어울릴 법한 암자를 모색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김 감독은 영화가 완성 되면 5월 칸영화제나 8월 베를린 영화제 등에 출품할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BBS 불교방송, 모바일 SNS 계정 개설

두 달만에 사연 1만 여건 신청



카카오톡 불교방송 라디오 메인 페이지

BBS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카카오톡 옐로아이디(BBS 불교방송·불교방송 뉴스)와 불교계의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BBS NEWS 카카오톡 스토리 등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개설해 청취자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BBS 불교방송’은 불교방송 대표 아이디로 방송국 개편 소식 및 공지사항을 알리고, ‘불교방송라디오’는 라디오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계정으로 실시간 문자 사연 및 음악 신청을 받는다.

‘불교방송법당’은 불교방송에서 열리는 불교 강좌와 법회 소식을 알려주며 ‘불교방송뉴스’는 불자들이 직접 불교방송 보도국으로 불교계 뉴스를 제보할 수 있다. 텍스트와 사진은 물론 음성메시지와 동영상

등 여러 형태로 전송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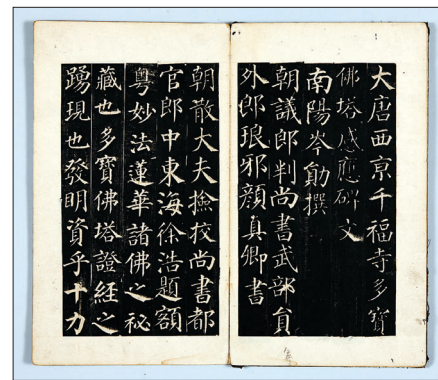
지난 10월 BBS 카카오톡 개설 이후로 청취자들은 지금까지 1만여 건이 넘는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으며, 청취자들이 SNS로 전송한 사진도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한 청취자는 “SNS로 불교방송 진행자 스님에게 진행생활에 대해 묻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 정말 좋다”며 “매일 아침 불교방송에 대해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교방송은 지난해에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BBSNEWS01)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불교계 뉴스를 제공했다. 이미 많은 불자들이 불교방송 뉴스를 공유하고 많은 ‘좋아요’를 남겼다.

정혜숙 기자

국립박물관... ‘서예의 길잡이 중국 법첩’展

안진경의 다보탑비 등 중요 서예가 작품 한자리에



안진경의 ‘다보탑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3월 15일까지 테마전 ‘서예의 길잡이 중국 법첩’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서예의 발전을 이끈 역대 중국 서예가들의 글씨를 담은 법첩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중국 역대 서가들의 필적이 담긴 ‘순화각첩’을 비롯해 왕희지(303~361년)의 행서를 집자한 ‘대당삼장성서’, 구양선(557~641년)의 ‘황보탄비’, 안진경(709~785년)의 ‘다보탑비’ 등 중요 서예가의 법첩이 소개된다.

법첩은 옛 명필들의 글씨를 모사하거나 탐본하여 만든 서첩이다. 모사와 탐본은 전통 복제 방식이다.

법첩은 명필의 글씨를 안전하게 보존하며 감상하기 위해 글씨를 모사하여 부분(副本)으로 만든 것으로, 보다 편리하게 감

상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책 모양으로 만들어진 법첩이었다. 법첩을 통해 옛 명필의 글씨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이 없어졌을 때는 진품의 글씨를 확인할 수 있어 옛날에 만든 법첩일수록 특히 소장 가치가 높다.

특히, 안진경(709~785)의 다보탑비(당, 752년)는 그의 초기 비석 글씨로, 단정한 자형에 정밀하고 변화가 큰 필획을 보여주고 있다.

안진경은 당의 충신으로 당 현종(685~762) 시대의 관료였으며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것으로 유명하다. 안진경은 평원(平原) 태수로 부임하기 전인 752년 44세 때 장안 천복사에서 건립된 다보탑비의 글씨를 썼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근하신년 새해새싹 자비망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주지 도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터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주지 변춘광

부주지 김월도
총무 김진철
교무 허자룡
재무 손무성
부전 정희명
거사부전 강근영
신도회장 문광진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 옥불보전

■ (우137-900)서울 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